

『三國遺事』의 龍王과 龍宮 形象

신태수*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龍王, 神人인가 畜生인가?
- III. 龍宮의 위상과 우주적 기능
- IV. 용왕과 용궁 형상의 사상적 특징
- V. 결론

【 】

『三國遺事』에서는 용왕을 神人이라고 하기도 하고 畜生이라고 하기도 한다. 용왕을 축생이라고 하는 까닭은 부처나 高僧의 권능을 강조하고 용왕을 불교세계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함이다. 용왕의 거주지인 용궁 또한 불교세계의 질서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 근거를 고승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고승만이 용궁 출입을 하고 고승만이 용궁을 우주 질서에 편입시킨다고 하면서, 고승이야말로 불교적 우주 그물망을 형성하는 주역이라고 한다. 불교적 우주 그물망 속에 들어간 용왕은 독자성이 없으며, 오로지 고승에게 기대어야 野蠻 狀態를 벗어날 수 있다. 정황이 이러다면 고승에 의해 龍宮 風情이 나타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용궁의 위용을 숨기느라고 용궁 풍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용왕과 용궁 형상을 총괄해보면, 두 가지의 사상적 특징이 포착된다. 對稱的 世界觀이 불교신앙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과 ‘중생-부처’ 구도의 공효가 우주적으로 확장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주제어 : 용왕왕과 용궁, 신인과 축생, 고승, 우주 질서, 불교적 우주 그물망, 아만상태, 용궁 풍정, 대칭적 세계관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I. 문제제기

『三國遺事』에는 龍王과 龍宮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용왕¹⁾과 용궁 각각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십여 차례나 되므로²⁾ 적지 않은 빈도수라 할 수 있다. 빈도수를 주목하여 『삼국유사』에 龍神思想이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빈도수가 곧 사상적 성향을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용신신앙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반영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용왕을 神으로 존송하고 용궁 풍정을 화려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용신신앙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고, 용왕을 짐승으로 천시하고 용궁 풍정을 평범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용신신앙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용신신앙이 『삼국유사』에서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용신신앙이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하는 현상은 용왕의 위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다. 용왕의 위상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용신신앙이 일정한 깊이와 높이로 반영되어야 합당하다. 용왕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경향을 절대적 용신신앙이라고 할 때, 『삼국유사』에서는 상

-
- 1) 『三國遺事』에서는 용과 용왕을 거의 분별하지 않는다. 용에 인격을 부여하고 용왕이라 하기도 하지만, 용이라고 해놓고 용왕을 나타내기도 한다. 용이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정황이 이러하므로 용이 인간처럼 말을 한다면 일단 용왕으로 보아야 옳다. 용이 용왕을 가리키는 현상은 용과 용왕을 혼용하는 오랜 관습에서 기인한다.
- 2) 『三國遺事』의 용 관련 설화는 이십여 편이나 된다. 용왕과 용궁은 이런 설화 가운데서 나타난다. 용 관련 설화는 몇몇 논자들이 정리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소개하기로 한다. 金煥泰,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龍神信仰-삼국유사를 중심으로』, 『佛敎學報』 11, 東國大 佛敎文化研究院, 1974, pp.123-129.; 趙石來, 『三國遺事所載 龍說話와 龍의 護佛』, 『진주교대 논문집』 21, 진주교대, 1980, pp.131-132.; 金鎮煥, 『龍神思想에 관한 考察』, 『東國思想』 18, 東國大, 1985, pp.50-54.; 전기웅, 『『三國遺事』 설화 속의 龍』, 『지역과 역사』 27, 부경역사연구소, 2010, pp.231-235.; 박다원, 『韓國 龍說話 研究-전승집단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한 考察』, 嶺南大 博士論文, 2016, pp.7-8.

대적 용신신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용왕의 권능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상대적 용신신앙이 삼국시대 실제의 용신신앙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조건과 상황을 인식하는 자가 일연이다. 결국, 일연의 불교적 시각에 따라 용신신앙이 부정되기도 하고 긍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 용신신앙이 당대 용신신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일연에게서 불교적 시각을 건어내지 않으면 용왕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언급이 여기서 가능해진다.

불교적 시각을 건어내기 위해서는 인물층위를 주목해야 한다. 인물층위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정황의 측면으로서, 화자가 제시하는 서술층위와는 상대적 위치에 선다.³⁾ 인물층위를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形象의 원천인 史實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형상에는 작자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고 사실을 벗어나는 내용이 삽입되기도 한다. 『삼국유사』의 용왕이 그런 경우이다. 용왕은 護法龍이니 護國龍이니 하면서 佛法이나 국가를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토속신앙에서는 신통력을 지닌 용왕⁴⁾이 『삼국유사』에서는 고작 파수꾼 정도이기만 하므로, 시각의 편향성을 생각해볼지 않을 수 없다. 파수꾼 이외의 진면목을 인물층위에서 찾아내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물층위를 추출해서 형상에 의해 산개된 사실을 복원시킬 때, 용왕 및 용궁 형상의 의미나 의의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

3) 서술층위와 인물층위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서는 신태수, 『『三國遺事』<南白月二聖>의 서술층위와 인물층위』, 『국학연구논총』12, 태민국학연구원, 2014, p.3에서 다룬 바 있다.

4) 이해화, 『龍 사상과 한국고전문학』, 깊은 샘, 1993, pp.20-33과 李聖熙, 『용궁의 서사문학적 구현 양상 연구』, 慶熙大 博士論文, 2001, pp.19-27 참조.

필자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삼국유사』의 용왕과 용궁 형상을 다루고자 한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신신앙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 관련 기록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한다. 특정 시각이 담긴 기록만을 선택한다면 편향성 내지 편협성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용신신앙이 전폭적으로 담겼다고 하거나 용신신앙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할 터이다. 둘째, 용왕과 용궁에 대한 일연의 인식을 점검하고자 한다. 용왕은 인격체이되 高僧보다 하위에 있고 용궁은 용왕의 거주지이되 그 위상은 지상계의 궁궐보다 그다지 높지 않다. 용왕과 용궁의 위상을 눈여겨보면 일연의 인식이 드러날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방법론을 면밀히 전개해 나갈 때 기존의 논리에 맡겨 들지 않고 용 관련 기록이 지닌 깊이와 높이를 온전하게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II. 龍王, 神人인가 畜生인가?

용 관련 기록을 다루기 위해서는 용왕의 존재부터 파악해야 한다.⁵⁾ 용이 용왕 이외의 그 무엇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용신신앙의 근거가 되는 용궁 주인이 용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용왕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지만, 『삼국유사』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기는 어렵다. 용왕의 형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용왕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이 있다. 능력이라고 해도 언제나 탁월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용왕

5) 李聖熙, 앞의 책, pp.19-45과 元大淵, 「고소설에 나타난 용궁·동굴 공간의 양상과 의미 연구」, 建國大 博士論文, 2006, pp.65-112에서 용신신앙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서 참조하기로 한다.

을 온전하게 긍정했다고 할 수 없다. 왜 용왕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정보가 자세하지는 않으므로, 오늘날의 향수자로서는 용왕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게 여겨질 법도 하다. 한 구절 한 모티프라도 놓치지 않고 용왕에 대한 정보를 섭렵해볼 필요가 있다.

용왕의 형상은 몇몇 자료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난다. 각 자료의 단편과 단편을 맞추어야 용왕의 형상이 겨우 추출되는 정도이다. 卷1 紀異의 <射琴匣>과 卷2 紀異의 <元聖大王>·<處容郎望海寺>·<眞聖女大王居陁知>가 그런 자료이다. <사금갑>과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는 용왕이 노인이라고 하고,⁶⁾ <원성대왕>에서는 용왕이 東池와 靑池와 芬皇寺 井龍으로서 河西國人에게 중국으로 잡혀가다가 풀려나자 물에서 한 길이나 솟구치며 기뻐서 달음질쳤다고 하고, <처용랑망해사>에서는 동해용으로 서 헌강왕이 절을 세우자 성덕을 찬양하며 歌舞했다고 한다. 단편적 자료에 의거한 추론이기는 하나, 용왕의 형상은 인간과 거의 유사하다. 노인의 형상을 하고 있고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하기 때문에, 용왕은 노인이되 근엄하지 않으며 자기감정에 충실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용왕은 『삼국유사』 이전부터 인격체로 인식되어 왔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河伯을 숭앙하는 용신신앙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용왕을 인격체로 인식한 시기는 신화시대와 거의 동래라고 할 수 있다. 용신신앙에 따르면 바다, 큰 강, 큰 우물, 큰 못에는 용왕이 군림한다고 한다. 큰물이 없는 곳이 없으니 용왕은 지역마다 있고 그 지역의 풍속과 문화와 긴밀하다. 토착성이 강한 재래의 용신신앙은 불교가 전래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6) 용왕이 젊다고 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사금갑>·<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는 늙었다고 못박았고, <처용랑망해사>에서는 일곱 아들을 거느렸다고 했으니 젊지 않다. 용왕이라고 하면 나이든 존재라는 인식이 일연에게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맞이한다. 불교가 막강한 문화 권력을 앞세워 재래의 용신신앙을 흡수·통합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⁷⁾ 흡수·통합된 용신신앙이 온전할 리가 없다. 토착성뿐만 아니라 개성까지 상실하고, 불교 문화권력의 방침에 따라 극단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 용왕이 하나같이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하다가도 때로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경우가 그 좋은 사례이다.

㉔ : 용왕은 아주 대단한 존재이다.

㉕ : 용왕은 아주 형편없는 존재이다.

㉔의 근거는 용왕이 饒富하고 非凡하다는 데 있다. 요부한 정황은 卷4 義解의 <寶壤梨木>과 <關東楓岳鉢淵藪石記>와 卷5 神呪의 <明朗神印>에서 나타난다. <보양이목>에서는 용왕이 知識祖師에게 金羅袈裟를 施給했다고 하고 <관동풍악발연수석기>에서는 용왕이 진표율사에게 玉袈裟를 바쳤다고 하고 <명랑신인>에서는 용왕이 명랑법사에게 황금 천량을 시주했다고 하니, 엄청난 金玉의 보유자라 할만하다. 한편, 비범한 정황은 卷2 紀異의 <文虎王法敏>과 卷4 義解의 <寶壤梨木>에서 나타난다. <문호왕법민>에서는 용왕이 명랑법사에게 文豆婁秘法을 전수해 唐軍을 물리치게 하고 <보양이목>에서는 용왕이 지식조사에게 鵲岬에 절을 지으면 凶賊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므로, 神通力과 叡智力의 소유자라 할만하다. 이처럼 많은 금옥을 보유하고 신통력과 예지력을 갖추었다면 神人임에 틀림없다.

㉕의 근거는 용왕이 나약하면서도 악독하다는 데 있다. 나약한 정황은

7) 박진태, 『『삼국유사』 용신설화의 유형과 작품양상』, 『고전문학과 교육』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pp.382-389 참조.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천상의 여우를 퇴치하지 못하고 민간 영웅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든지, 외국 사신에게 휘둘러서 잡혀가다가 부인들의 탄원에 의해 풀려난다든지, 불교 강설을 경청하기는 해도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하지는 못한다든지 하므로,⁸⁾ 나약한 필부의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악독한 정황 또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고승이 어렵게 확보한 대장경을 차지하기 위해 풍랑을 거세게 일으켜 배를 난파시키려 한다든지, 중국에서 신라 지경에 이르기까지 줄곧 고승을 따라다니며 인명을 살상한다든지, 나찰녀와 사귀면서 雷雨를 내려 농사를 망친다든지 하므로,⁹⁾ 악독한 괴물의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용왕이 인간 경계를 벗어나서 나약한 필부나 악독한 괴물로 비춰지는 이상, 용왕은畜生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

신인이기도 하고 축생이기도 한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형식논리로 볼 때는 착종처럼 여겨진다. 신인이면 축생일 수 없고 축생이면 신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삼국유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삼국유사』가 착종 현상을 보인다는 느낌마저 준다. 가령, 卷3 塔像의 <皇龍寺九層塔>에서는 용왕을 “神人”이라고 지칭하다가도 권2 기이의 <문호왕법민>에서는 “畜報”라고 지칭한다.¹⁰⁾ 용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양상만 보면 착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용왕과 상대편 존재의 위상을 고려하면 그렇지가 않다. 낮추기와 높이가 선후관계라는 질서

8) 순차적으로 출처를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진성여대왕거타지>, <원성대왕>, <보양이목>과 <명랑신인>.

9) 이 또한 순차적으로 출처를 밝히기로 한다. <전후소장사리>, <해통항룡>, <어산불영>.

10) ‘축보’란 ‘축생 업보’의 축약어이다. 해중의 통치자를 축생이라 했으니, 용왕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었다고 할 수 있다. 卷2 紀異의 <水路夫人>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 용왕을 “傍生”이라고 지칭했으니, ‘축생’과 의미가 유사하다. ‘방생’이란 몸이 옆으로 되어 있는 벌레나 물고기나 날짐승 등의 짐승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축생이라고 할 정도로 용왕의 위상이 낮았다가 상대편 존재의 도움을 받아 신인이라고 할 정도의 위상을 지니므로 정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민간 영웅의 도움으로 대단한 권능을 획득한다.

<진성여대왕거타지>

Ⓑ 부처나 고승에 의해 악행을 멈추고 선업을 닦다.

<전후소장사리>, <어산불영>, <혜통항룡>

Ⓒ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고 소망을 성취한다.

<원성대왕>, <처용랑망해사>, <보양이목>, <명랑신인>

Ⓐ~Ⓒ를 보면 애초에 용왕은 신인과는 거리가 멀다. 즉, 애초에 신인의 자질을 지니기는 했을망정 신인 그 자체는 아니었다. 신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축생이거나 축생과 가깝다는 의미가 된다. Ⓐ의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처럼 나약하기 그지없거나 Ⓑ의 <전후소장사리>·<어산불영>·<혜통항룡>에서처럼 용왕의 횡포가 자심하거나 하기 때문에 ‘축생’이라는 호칭을 붙이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초월적 존재를 만나면서 정황은 급변한다. 즉, 여러 용왕들이 각기 초월적 존재인 거타지, 보요선사, 부처, 혜통대사, 원성대왕, 현강왕, 지식조사, 명랑법사를 만나면서 축생의 위상에서 신인의 위상으로 전환된다. 전환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용왕이 ‘축생에서 신인으로’ 변모한다고 했으므로 용왕을 추앙한 듯하나, 애초부터 위상이 높은 존재를 낮은 존재로 설정했기 때문에 추앙이라고 해도 조건부 추앙이다.

조건부 추앙이라고 할 때 용왕이 애초에 축생이거나 축생에 가까운 위상을 지녔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바꾸어 말해, 용왕은 애초에 신인이

아니다.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라도 하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축생이었거나 축생에 가까운 위상을 지녔다고 했으므로, 신인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양상은 토속신앙의 입장과는 현격히 다르다. 토속신앙의 입장에서는 용왕이 애초부터 초월적 권능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에 용왕은 시종일관 신인일 따름이다.¹¹⁾ 정황이 이러하므로 토속신앙의 입장에서 『삼국유사』의 설정을 수용할 수가 없다.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해버리면 용왕이 축생이거나 축생에 가까운 위상을 지닌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만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삼국유사』 용 관련 기록은 대체로 용왕을 깎아내리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깎아내리기 어려운 용왕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삼국유사』에서는 두 가지 장치를 폭넓게 구사한다. 애초에는 용왕이 극도의 무법자였다고 한 점과 용왕이 부처나 고승에 의해 불교세계의 질서에 편입된다고 한 점이 그것이다. ㉞의 <어산불영>·<혜통항룡>은 이런 장치를 담고 있다. <어산불영>에서는 수로왕이 부처를 불러 악룡을 다스렸다고 하고, <혜통항룡>에서는 혜통이 교룡에게 불살계를 내려 악행을 진정시켰다고 한다. 용왕을 깎아내려 불교세계의 질서에 편입시키자면 무리수가 불가피하다. 한반도에 오지도 않은 부처가 萬魚寺에 왔다고 하거나 혈기왕성한 교룡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정시켰다고 하는 설정이 그 증거이다. 이로써 용왕을 깎아내리는 까닭이 드러난다. 부처나 고승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 그 상대역인 토속신앙의 용왕을 축생으로 깎아내릴

11) 이 점은 용신신앙을 다룬 논자들이 잘 밝혀내고 있다. 용왕의 초월적 권능을 특별히 강조한 논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朴桂弘, 『古代 龍神思想에 關한 研究』, 『韓國言語文學』6, 韓國言語文學會, 1969, pp.127-132.; 洪慶杓, 『龍神說話와 그 象徵體系 試攷』, 『韓國傳統文化研究』1, 韓國傳統文化研究院, 1985, pp.268-275.

수밖에 없었다.

일연의 시도가 정합성을 지니겠는가 하는 사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용왕에 대한 규정은 사실의 논리가 아니라 권능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정황이 이러하므로, 용왕을 축생이라고 한 규정이 어느 정도로 통용될 것인가 하는 사안이 중요하다. 통용 권역은 상당히 넓다. 용 관련 기록을 보면, 불교신앙이 사회의 상부구조에 자리잡았고 토속신앙은 하부구조에서도 밀려나는 추세이다. 고승은 임금과 만나 국사를 의논하지만, 용왕은 백성에 대해서도 축생으로 불린다는 점¹²⁾이 그 근거이다. 토속신앙이 권능을 상실한다고 해서 토속신앙의 권능이 배대한 세계관까지 쉽사리 소멸되지는 않지만, 반동의 기회를 잡고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일연은 바로 이런 시대에 살았다. 불교신앙의 권능을 한몸에 누리고 있었고, 그런 권능에 힘입어 용왕을 규정했다. ‘용왕은 축생이지만 신인도 될 수 있다.’가 그것이다.

Ⅲ. 龍宮의 위상과 우주적 기능

용왕을 불교세계의 질서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용왕의 거주지인 용궁 또한 불교세계의 질서에서 예외일 리가 없다. 용궁은 別有天地非人間이고 동시에 범우주적이다. <수로부인>에서 보듯, 용궁은 물색이 화려하고 진귀한 음식이나 보석들로 넘쳐나며, 수중계의 중심 공간으로서 천상계와 지상계와도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 별유천지비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용궁 형상의 오랜 관습이어서 별 새로운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은 고승을 만난 이후

12) 임금과 고승의 관계는 <보양이목>, <혜통항룡>, <원성대왕> 등에서 나타나고, 용왕과 백성의 관계는 <수로부인>에서 나타난다.

부터 범우주적인 성격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데 있다. 고승을 만나면서부터 공간과 공간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고 구별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표방하는 우주 원리가 예사롭지 않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검토해서 우주 원리를 추출하고 용궁의 우주적 위상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1. 용궁, 그 우주 그물망의 해중 공간

『삼국유사』에서는 고승의 용궁 출입이 자유롭다. <보양이목>에서는 지식소사가 서해 용궁에 가서 불경을 염송했다고 하고, <명랑신인>에서는 명랑법사가 당나라에서 배운 비법을 용궁에 가서 전수했다고 한다.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고승이 용궁에 출입했을 법한 자료는 더 있다. <전후소장사리>와 <관동풍악발연수석기>가 그것이다. <전후소장사리>에서는 보요선사가 신통을 달래기 위해 祝願했다고 하므로 용궁에 갔을 개연성이 높고, <관동풍악발연수석기>에서는 용왕이 진표율사에게 옥가사를 바쳤다고 하므로 용궁에 갔을 개연성이 높다. 고승이 용궁에 출입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은 것 같다.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궁에 들어갔다 용무를 끝낸 뒤 바로 지상계로 나온 듯이 서술하기 때문이다.¹³⁾

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고승의 용궁 출입 현상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공간과 공간이 상호 개방적이다. 지상계에서 용궁으로 가는 데 조건이 없고, 용궁에서 지상계로 나오는 데 절차가 없다. 지상계는 용궁을 향해 열렸고 용궁은 지상계를 향해 열렸다. 둘째, 공간과 인물 간의 관계가 긴밀하다. 공간은 인물의 개성을 형성하고 인물은 공간의 특징을 형성한

13) <보양이목>과 <명랑신인>에서 해당 기록을 인용하기로 한다. “祖師知識 大國傳法 來還 次西海中 龍邀入宮中念經 施金羅袈裟一領 兼施一子瑠目 爲侍奉而追之<寶壤梨木>”와 “師挺生新羅 入唐學道 將還 因海龍之請 入龍宮傳秘法 施黃金千兩 潛行地下 湧出本宅井底<明朗神印>”가 그것이다.

다. <보양이목>에서 용궁은 지식조사의 진가를 빛나게 하고, 지식조사는 용궁을 호법적 공간으로 바꾼다. 셋째, 지상계와 수중계의 위격이 동일하다. 인물 간에는 차등이 있지만, 공간 간에는 차등이 없다. 지상계와 수중계 중 어느 한 쪽이 더 높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하면 고승의 용궁 출입 현상은 예사롭지 않다. 고승을 고리로 하여 공간과 공간, 공간과 인물이 일종의 우주 그물망¹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고승이 우주 그물망의 고리 역할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확인해볼 사안이 있다. 수중계에서 용궁 밖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하는가 하는 점과 고승 이외의 인간도 고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수중계에는 용궁 밖 공간도 있게 마련이다. 해중에 오로지 용궁 이외에는 없고 용궁만이 수중계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리에 맞지 않다.¹⁵⁾ 『삼국유사』에서는 용궁 밖 공간에 대해 언급이 없다. 고승이 용궁에 들어간다고 할 때 굳이 수중계의 용궁 밖 공간을 거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높다. 한편, 수중계를 출입하는 인간으로서는 고승 이외에는 없다. 고승만이 수중계의 용왕을 위무하거나 용궁을 안돈시키거나 한다는 인식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고승의 역할은 매우 크다. 용궁 밖 공간에 대한 서술을 차단시키고 용궁을 고승이 지닌 권능의 범위 안에 가두어두기 때문이다.

14) 천체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여 별과 별을 긴밀하게 만든다고 하며 그런 천체를 한꺼번에 일컬어서 우주 그물망이라고 한다. 『삼국유사』에서 고승이 '별과 별 사이의 중력'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승을 우주 그물망의 연결 고리에 비유하고자 한다.

15) 『삼국유사』에서는 언급이 불분명하나, 짐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 하늘 여우가 서해 용왕을 괴롭힌다고 했으니, 하늘 여우가 서해 용궁으로 침투할 때 용궁 밖 공간을 거쳤을 개연성이 높다. 수중계가 전부 용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고승의 권능에 기대어야 하는 용궁이라면 부족한 측면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삼국유사』에서는 그런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전후소장사리> · <보양이목> · <명랑신인>이 이에 해당된다. <전후소장사리>에서는 용왕이 호법적 성향을 지니고 용궁에 대장경을 유지하고자 하고, <보양이목>에서는 서해 용왕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지식조사를 초청해서 불법을 듣고자 하고, <명랑신인>에서는 용왕이 명랑법사를 초청해서 당나라에서 배운 불법을 전수받하고자 한다. 용왕은 고승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나, 용궁에는 그럴 수 있는 고승이 없다. 외부에서 초청이라도 해야 할 터인데, 구범 여행에서 돌아오는 승려는 최적격이다. 선진국에서 첨단 지식을 터득한 고승이기 때문이다.¹⁶⁾ 용궁은 어두운 곳이고 고승은 햇불과 같은 존재라고 볼 때, 용궁이 고승이라는 고리로부터 이탈해버리면 바로 몽매한 곳이 되고 만다.

고승의 고리 역할은 지상계와 수중계의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공간 영역의 최상위권인 천상계를 지상계 · 수중계와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도 한다. <보양이목>의 지식조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고승이다. 지식조사가 천상계 주재자인 天帝에게 순응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천제에게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목을 불러 비를 내리라고 지시한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토속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지식조사의 행위는 위계질서의 심각한 위반이다. 천제만이 지닌 강우 명령권¹⁷⁾을 침범했을 뿐 아니라 천제의 진노

16) 입당 유학승에 대한 논의는 크게 보아 두 가지다. 구범여행의 차원에서 다른 경우와 정치활동의 차원에서 다른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와 후자에 해당되는 논문을 순차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김승호, 『구범여행과 그 부대설화의 일고찰-귀국승의 용궁체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1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2, pp.241-250.; 김승호, 『해양공간의 설화적 수용과 의미-『三國遺事』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7,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pp.50-65.; 조범환, 『新羅 下代 僧侶들의 入唐 留學과 禪宗 佛教 문화의 擴散』, 『韓國思想史學』40, 韓國思想史學會, 2012, pp.17-18.

를 僞計¹⁸⁾로써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천제에게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았지만, 천제의 명령에 불복하려는 의도는 감지된다. 이런 현상은 일연의 시각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지상계·수중계에 대한 천상계의 지배권을 용인하되 고승을 고리로 하는 우주 그물망으로 교체하러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주 그물망에서는 고승이 중심이다. 고승은 천상계·지상계·수중계를 연결하는 고리일 뿐만 아니라 宇宙 法界를 불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존재이다. 고승이 구현하는 우주 그물망을 불교적 우주 그물망이라 할 때, 용궁이 불교적 우주 그물망에 놓이지 않는다면 위상이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용왕이 용궁을 호법적 분위기로 바꾸고자 하나 고승이 없어서 바꿀 수 없고, 용왕이 용궁을 강고하게 지키고자 하나 힘이 없어서 강고하게 지킬 수 없다. 용궁의 위상이 왜소한 까닭은 용왕에게서 기인한다. 용궁의 통치자인 용왕이 축생이거나 축생에 가까운 위상을 지녔다고 했으니, 용왕의 거주지인 용궁 또한 완벽한 이상향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연은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불교적 우주 그물망에 놓일 때 용궁은 안전하고 완전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17) 황경숙, 「이무기 설화와 기우제」, 『韓國民俗學報』4, 한국민속학회, 1994, p.181의 언급이 눈길을 끈다. 천제가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비를 내렸다고 하여 이목을 죽이려고 하는 까닭은 천제만이 강우 명령권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료의 맥락을 통해 천제의 권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18) 위계의 성격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위계의 성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천제의 사자가 이목을 잡으러 오자 지식조사는 이목을 평상 밑에 숨겼다. 사자가 이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니 지식조사는 배나무를 가리켰다. 사자는 배나무에 벼락을 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니, 지식조사는 두 차례나 위계를 구사했다. 천제의 사자에게 이목을 내어주지 않고 평상 밑에 숨겼다는 점이 그 한 가지요, 배나무를 가리켜 이목이라고 했다는 점이 그 다른 한 가지다.

2. 용궁의 내부 구조와 우주적 기능

고승이 용궁에 출입한다면 고승이 본 용궁 형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용궁 내부의 구조나 장식이나 구성원 숫자가 바로 그것이다. 『삼국유사』에서는 고승들이 본 용궁 형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승 한두 명만이 용궁에 출입했다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용궁 형상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여길 만도 하나, 출입한 고승이 여럿이라는 정황이 있는 바에야 그렇게 여길 수가 없다. 아마도 고승이 고의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가 서술하지 못했거나 고승이 본 바를 화자가 고의로 서술하지 않았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용궁 형상을 감추고자 한 의도는 동일하다. 용궁 형상을 드러내면 용왕을 축생으로 몰아세워야 하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용궁 형상은 고승과는 상관없는 자에 의해 드러난다. <水路夫人>의 수로부인이 그런 자이다.¹⁹⁾ 수로부인은 강릉태수 순정공의 부인이므로 신분은 높지만, 활달하고 가식 없는 성정을 지녔다. 牽牛老翁으로부터 철쭉꽃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꽃노래를 獻贈歌로 받기도 했다는 점이 이렇게 판

19) 수로부인 이외에도 용궁 풍정을 전달했음직한 인물이 더 있다. 卷4 義解의 <元曉不羈>를 통해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 <원효불기>에서는 “해룡의 유도로 인해 소를 노상에서 받고 삼매경소를 찬했다.(亦因海龍之誘 承詔於路上 撰三昧經疏)”라고 했다. ‘亦因海龍之誘’라는 언급으로 보아 누군가가 전달하는 용궁 풍정이 있을 법도 한데, <원효불기>에서는 찾을 수 없다. 용궁 풍정에 대한 설명은 의외로 贊寧이 편찬한 『宋高僧傳』卷4, 義解2, 釋元曉傳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배가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홀연히 한 늙은이가 나타났다. 그 늙은이는 물속에서 배 위로 뛰어올라 사인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갔다. 바다 속에서는 장엄하고 화려한 궁전이 있었다. 이 용궁에는 궁해라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溟漲之中忽見一翁 由波濤躍出登舟 邀使人入海睹宮殿嚴麗 見龍王名鈴海)”가 그것이다. 『송고승전』에 비추어보면 『삼국유사』<원효불기>에서는 사인의 눈을 통해본 용궁 풍정이 산개되었다. 일연이 용궁의 위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산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원효불기>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단할 수 있는 단서이다. 수로부인이 선물이나 헌증가를 공개적으로 받았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웬만한 사람이라면 수로부인의 성정을 이미 알고 있다
고 보아야 한다. 대중에게 알려질 정도라면, 수로부인이 불교적 시각에 이
끌려서 일방적으로 용왕을 깎아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다시 말해, 용왕의
거주지인 용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표출할 터이다. 해룡에
게 반감이 있을 법한 상황²⁰⁾에서도 용궁 형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
는 까닭이 여기에서 기인한다. 수로부인이 전하는 용궁 형상을 확인하기로
한다.

공이 부인에게 바다 속의 일을 물었다.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일곱 가지
보물로 꾸민 궁전에 음식들은 맛이 달고 매끄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의 옷에도 색다른 향기가 스며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말아볼 수 없는 향기였다.(公問夫人海中事 曰七寶宮殿 所饈
甘滑香潔 非人間煙火 此夫人衣襲異香 非世所聞)

용궁 형상이 예사롭지 않다. 불교적 시각이 서술층위를 지배하기 때문에
용궁 형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흐릿할 것 같은데, 의외로 뚜
렷한 편이다. 치장이 화려하고 음식이 진귀해서 인간세상이 아니라고 하며
용궁을 신성하게 여긴다. 이와 같은 용궁 형상이 서술층위에 담겼다면 불
교적 서술층위로도 용궁 풍정을 은폐·왜곡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불교적 서술층위로 은폐·왜곡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추론
할 필요가 있다. 수로부인의 경험담이 픽진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경험담을

20) 『삼국유사』의 서술층위에서는 수로부인이 해룡에게 납치되었다고 한다. “海龍忽攬
夫人”의 언급이 그 근거이다. 서술층위의 언급이 맞다면 수로부인이 해룡에게 반감을
가지고 저항했어야 옳다. 서술층위의 언급과는 달리, 인물층위에서는 수로부인이 저
항하지 않은 것 같다.

무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 한 가지요, 용궁을 신성시하는 전통적 관념이 강렬해서 해룡을 온전히 악룡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그 다른 한 가지다. 물론, 일연이 전혀 은폐·왜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물층위를 고려하면 일연이 은폐·왜곡했음직한 용궁 풍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1. 수로부인은 용왕에게 납치되지 않았고, 당당히 초청받아 갔다.
→ 용왕이 수로부인을 환대하므로 납치하지 않았고 초청했을 것 같다.
2. 용왕이 진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 치장이 화려한 공간에서 용왕이 여러 진귀한 음식을 대접하므로, 용왕이 잔치판을 벌였다고 보아야 옳다.
3. 용왕은 수로부인의 외모에만 반하지 않았고, 내·외면의 아름다움인 姿容美²¹⁾에 반했다. → 용왕이 수로부인의 미모에만 찬사를 보냈다고 볼 수 없고, 수로부인의 자연관 내지 우주관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을 것 같다. 수로부인이 용궁 체험 이전에는 꽃을 매우 사랑했고 용궁 체험 이후에는 자연의 신물과 교섭했으므로, 수로부인의 자연관 내지 우주관이 남달랐으리라 여겨진다.
4. 수로부인은 자기를 초청해준 용왕에게 고마워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 흥겨운 잔치판에서 수로부인과 용왕은 상호 극존칭어를 사용했을 것 같다. 수로부인은 용왕에게 제왕의 호칭어를 사용했을 터이고, 용왕은 수로부인에게 귀부인의 호칭어를 사용했을 터이다.

1~4는 일연이 은폐·왜곡했음직한 용궁 풍정이다. 1에서는 용왕이 수로부인을 초청했다는 내용을 용왕이 수로부인을 납치했다는 내용으로 왜

21) <수로부인> 원문에 나온다. “水路姿容絶代”이 그것이다. “姿容”이 건우노옹의 현화가 관련 대목 이후에 나오므로,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수로부인이 철쭉꽃을 절절히 사랑하는 데서 보듯, 자연 친화적 태도나 시각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곡시켰고, 2에서는 용왕이 수로부인에게 배운 ‘성대한 잔치’를 ‘단순 접대 행사’로 왜곡했고, 3에서는 용왕이 수로부인의 자용미에 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로부인의 미모에 반했다고 왜곡했고, 4에서는 수로부인이 용왕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 터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은폐했다. 1~4를 거론하기는 했지만, 1~4만이 전부는 아니다. 용궁 풍정을 刪改하려는 일연의 노력이 교묘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4 이외에 더 발견될 여지도 있다. 인물층위에서 볼 때, <수로부인>의 용궁 풍정은 의의이면서 한계이다. 강고한 서술층위를 뚫고 장대하고 정감 있는 용궁 풍정을 전달한 점은 의의이지만, 산개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의 생기를 잃었다는 점에서는 한계이다.

<수로부인>의 용궁 풍정이 한계가 있되 의의 또한 있는 바이므로, 가법계 볼 수 없다. 의의란 인물층위가 부분적이거나 서술층위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진성여대왕거타지>와 함께 확인하기로 한다. <진성여대왕거타지>에는 불교적 시각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로부인>과 함께 다룰 수 있다. <수로부인>에서는 용궁이 지상계와 긴밀한 관계라고 한다. 수로부인이 매개자가 되어 지상계와 용궁을 연결시킨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한편, <진성여대왕거타지>에 의하면, 용궁은 천상계와 긴밀한 관계이다. 西海 龍族이 하늘 여우에 의해 고통을 겪는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용궁 풍정이 서술층위에 의해 산개되기는 했지만, 용궁의 기능까지 소거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용궁이 <수로부인>의 경우에는 지상계와 긴밀하고 <진성여대왕거타지>의 경우에는 천상계와 긴밀하다는 점이 나타날 수 있었다.

<수로부인> ·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는 용궁 고유의 특징을 강조하지만, 여타 자료를 보면 용궁 고유의 특징을 감추고 우주적 기능만을 강조한다. 여타 자료에서 언급하는 우주적 기능이란 ‘용궁이 고승의 전법에 의

거하여 불교적 우주 그물망에 온전히 편입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왜 두 쪽이 이토록 다른지를 캐내지 않을 수 없다. <수로부인>·<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는 별유천지비인간의 풍정을 밝히고자 하고, 여타 자료에서는 불교적 우주 그물망의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차이는 여기서 생긴다. 연대상으로 토속신앙에 토대를 둔 <수로부인>·<진성여대왕거타지>가 여타 자료에 비해 앞선 바이므로, <수로부인>·<진성여대왕거타지>가 선행 자료이고 여타 자료는 후행 자료이다. 결국, 일연이 토속적 용궁을 여타 자료에 가져와서 용궁의 우주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IV. 용왕과 용궁 형상의 사상적 특징

용 관련 기록에는 천상계·지상계·수중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용궁이 천상계와 지상계의 매체 구실을 하기 때문에 세 영역의 공간계가 긴밀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이물이 화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이물이 화동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용 관련 기록에 불교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여 공간과 공간,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교섭 현상이 불교사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불교는 문명적 시각에서 고저를 구분하고 좌우를 분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²²⁾ 용 관련 기록에는 불교의 문명적 시각

22) 적지 않은 논자들이 華嚴思想에 이룬 논리가 있다고 하며, 義湘이 저술한 <華嚴一乘法界圖>의 언급을 例擧하곤 한다. 꼭 집어서 말하면 “一卽多 多卽一”이다. 이 말은 ‘우주의 다양한 현상이 결국은 하나의 이치’라고 하는 의미로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뒷받침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분별하는 논리를 담았다고 한다.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화엄사상은 차별과 분별을 전제로 한다는 언급이 가능해진다. 安啓全,

뿐만 아니라 불교사상과는 다른 관점이나 시각이 나타난다고 해야 합당하다. 이 다른 관점이 불교사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밝히기로 한다.

1. 對稱的 世界觀의 불교적 수용

『삼국유사』 용 관련 기록을 보면, 여러 인물이 용왕을 만난다. 부처, 나찰녀, 보요선사, 지식조사, 진표율사, 혜통대사, 정공, 명랑법사, 수로부인, 당 사신, 하서국인, 헌강왕, 하늘 여우, 거타지가 용왕과 만난 인물들이다. 용왕과 만난 인물들을 유형화할 때, 부처·군주와 같은 절대지존, 보요선사·지식조사·진표율사·혜통대사·명랑법사와 같은 고승, 하늘 여우와 같은 짐승, 나찰녀와 같은 악귀, 당 사신·하서국인과 같은 외국인, 거타지와 같은 민간 영웅이 된다. 절대지존, 고승, 짐승, 악귀, 외국인, 민간 영웅이 상호 이질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해서 용왕이 이런 인물들을 만나는지가 의문이다. 용왕이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용 관련 기록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혀보기로 한다.

용왕이 여러 인물을 만날 때는 말을 주고받았으리라고 본다. 용왕과 상대방이 만난다고 해놓고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할 리 없다. 상대방이 인간이라면 말을 주고받는 현상이 당연하나, 상대방이 인간 이외의 인물이라면 말을 주고받는 현상이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으니 따져야 한다. 가령, 용왕이 부처·나찰녀와 만나는 <어산불영>을 보면 용왕은 나찰녀와 교류하고 부처는 용왕을 만나 악행을 개유한다. 개유라고 한 이상, 용왕이 악귀 나찰녀나 절대지존 부처라고 해서 말을 주고받지 않을 리 없다. 하늘 여우와의 만남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진성여대왕거타지>를 보면,

『韓國佛敎史研究』, 同和出版社, 1982 p.79과 남동신,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20, 한국역사연구회, 1996, pp.41-47 참조.

본색은 하늘 여우이되 외형은 승려이므로, 용왕과 승려가 말을 주고받았으리라 본다. 물론, 이런 설정은 비밀상적 차원이다. 비밀상적 차원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그럴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럴 만한 조건으로는 對稱的 世界觀을 떠올릴 수 있다. 대칭적 세계관이란 주체와 객체가 독자성을 지니되 대등하고 내밀하다고 여기는 시각을 가리킨다. 이런 시각은 상이한 영역의 주체와 객체를 화동관계로 간주하기 때문에 분화·분별·차이를 강조하는 문명적 시각과는 정반대편에 있다.²³⁾ 『삼국유사』 용 관련 기록에서 나타나는 시각은 대칭적 세계관과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다. 주체와 객체가 대등하면서도 내밀하다고 여기고 삼라만상을 우주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점에서는 대칭적 세계관과 가깝고, 대상을 주체와 객체로 구획하고 차이와 등위를 분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대칭적 세계관과 멀다.²⁴⁾ 용왕이 여러 인물과 만나 말을 주고받는 현상은 대칭적 세계관과 가깝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대칭적 세계관과 가깝기도 하도 멀기도 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토속신앙의 향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토속신앙이 대칭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이므로,²⁵⁾ 대칭적 세계관이 나타나

23) 대칭적 세계관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서는 신태수, 『<단군신화>의 대칭적 세계관 그 후대적 변이』, 『민족문화논총』5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 pp.586-595에서 논의한 바 있다.

24) 부처와 고승이 등장하면 항시 높은 위치에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어산불영>에서는 부처가 수로왕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여러 고승 행적담에서는 고승이 용왕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분별과 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대칭적 세계관이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25) 토속신앙은 '재래의 종교적 신념이나 행위'이고 대칭적 세계관은 '주체와 객체가 독자성을 지니되 대등하고 내밀하다고 여기는 시각'이다. 주체와 객체가 대등하고 내밀하다는 시각이 재래의 종교적 신념이나 행위를 유발하기 때문에 대칭적 세계관은 토

는 용 관련 기록에는 불교신앙뿐만 아니라 토속신앙도 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매우 이색적이다. 불교신앙이 지배하는 용 관련 기록에 대칭적 세계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불교신앙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그런 영역에 토속신앙을 내세우다보니 대칭적 세계관이 나타났을 것 같다. 대칭적 세계관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군신화>를 보면, 서로 다른 공간이 교섭하고 서로 다른 존재로 형체를 전환하고 서로 다른 존재끼리 의사소통을 한다. 용 관련 기록에서도 이런 효과를 노리고 대칭적 세계관을 활용했을 성싶다. 용 관련 기록 중의 고승 행적담에서 특이하게도 대칭적 세계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승 행적담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보요선사 : 보요선사가 대장경을 구해 돌아올 때 용왕이 해풍을 일으켰다.

보요선사는 주문으로 축원하여 대장경을 보존했으며 용왕까지 데리고 왔다.

지식조사 : 지식조사가 대국에서 법을 전수하고 돌아올 때 서해 용왕이 용궁으로 인도하자 용궁에 가서 經을 염송했다.

진표율사 : 진표율사가 교법을 받은 뒤 금산사를 세우기 위해 대연진에 이르렀을 때 용왕이 나와서 옥가사를 바치고 팔만 권속으로 금산수까지 호위했다.

혜통대사 : 혜통대사가 병마로 변한 교룡을 쫓아내자 교룡은 신라 문인림에 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쳤다. 이에 혜통대사가 신라로 와서 교룡을 쫓아내자 교룡은 버드나무로 변신하여 자기를 고발한 정공을 죽게 만든다. 그 이후, 기장산으로 가서 운성이 되어 백성들을 괴롭히니, 그 폐해가 너무나 컸다. 혜통대사가 기장산에 가서 달래고 불살계를 주니 교룡이 그제야 작란을 그쳤다.

속신앙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명랑법사 : 명랑법사가 당나라에서 도를 배우고 돌아올 때 해룡이 비법을 전수해주기를 청하자, 기꺼이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하고 돌아왔다.

대칭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고승 행적담을 정리해보니, <단군신화>에서 보여준 대칭적 세계관의 특징이 그대로 발견된다. 즉, 서로 다른 공간이 교섭하고 서로 다른 존재끼리 형체를 전환하고 서로 다른 존재끼리 의사소통을 한다. 대부분의 고승이 지상계에서 용궁에 들어가므로 수중계와 지상계가 교섭한다고 할 수 있고, 해룡대사 행적담에서 교룡이 병마·버드나무·용신으로 변화하므로 서로 다른 존재로 형체를 전환한다고 할 수 있고, 모든 고승들이 상대방과 대면하므로 서로 다른 존재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단군신화>의 특징이 왜 고승 행적담에 나타나는지를 캐내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고승이든 간에 지상계를 벗어나서 형체가 다른 존재를 교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연이 ‘고승의 용왕 교화 장면’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토속신앙의 대칭적 세계관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고승 행적담에 토속신앙의 대칭적 세계관이 나타나는 현상이 범상치 않다. 불교신앙이 강하게 담긴 고승 행적담에 토속신앙의 대칭적 세계관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불교신앙과 토속신앙은 대극적이어서 충돌하기 십상이지만, 의외로 충돌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용 관련 기록의 인물 구도에서 기인한다. 고승이 상대방 이른바 용왕을 만날 때, 용왕의 위격은 대체로 고승보다 낮다. 일연이 ‘고승의 용왕 교화 장면’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용왕의 위격을 고승보다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용왕의 위격이 고승보다 낮으니 용왕이 고승과 맞선다는 설정은 불가능하다. 불교신앙과 토속신앙이 충돌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승 행적담은 대칭적 세계관을 철저히 수단으로 활용한다. 불교적 우주 그물망을 구현할

목적으로 용왕의 위격을 낮춘 뒤 대칭적 세계관을 동원한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2. ‘중생-부처’ 구도의 우주적 전개

‘고승의 용왕 교화 장면’은 고승의 합리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합리적 사고란 ‘논리적으로 필연성에 합당한 사고’를 가리킨다. 필연성에 합당한 사고라고 할 때, 항구불변의 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삼국시대의 합리적 사고와 현대의 합리적 사고가 같을 수가 없고, 동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합리적 사고를 하지는 않는다.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장소나에 따라 합리적 사고의 내용이 달라질 터이므로, 변수를 잘 헤아려 합리적 사고의 내용을 따져야 한다.²⁶⁾ 용 관련 기록은 주로 삼국시대 내지 통일신라시대에 유전되던 이야기이므로, 고승의 합리적 사고란 주로 삼국시대 내지 통일신라시대의 합리적 사고가 된다. 결국, 고승은 합리적 사고에 입각해서 당대의 중생을 교화한다는 언급이 가능해진다.

고승이 합리적 사고에 입각해서 중생을 교화한다면, 교화 내용이 현실주의와 긴밀하리라 본다. 그 근거는 고승의 시대적 사명 때문이다. 고승으로서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대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지향 가치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 책무도 그만큼 크다고 보아야 한다. 원효대사의 대중불교운동이나 원광법사의 화랑도 세속오계는 시대적 사명을 자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어느 고승이든 간에 원효대사나 원광법사의 경우와 그리 다르지 않을 터이므로, 고승은 어느 시대이건 간에 합리적 사고의 차원에서 현실주의를 대응 논리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고승의 중생 교화 장면’의 내용은 불문가지다. 합리적 사고에 입각해서 중

26) 신태수, 『대칭적 세계관의 전통과 서사문학』, 새문사, 2007, pp.47-55 참조

생에게 현실을 설명하고 지향가치를 제시하리라 본다. 현실을 설명하고 지향가치를 설정하는 방법은 논자마다 같을 수 없으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연은 ‘고승의 용왕 교화 장면’에서 對極의 方法²⁷⁾을 구사한다. <보양이목>에서 보듯 고승을 천제의 강우 명령권에 맞서는 초월적 존재라고 하고 <수로부인>과 <문호왕법민>에서 보듯 용왕을 축생이거나 축생과 가까운 존재라고 하면서, 고승과 용왕을 각기 교화 주체와 교화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상호 대극적이다. 고승과 용왕을 대극적이라고 한 까닭은 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용왕이 고승을 만난 뒤 신인이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용왕의 위격을 한껏 낮추어야만 했다. 교화 효과를 노린다면 교화의 내용도 나올 법하지만, 그런 내용이 분명치는 않다. 분명치 않더라도 짐작은 가능하다. 고승의 傳法으로 용왕이 신인이 되었다고 했으니, 아마도 불교적 우주 그물망에 편입되어야 축생에서 벗어나서 신인이 된다고 했을 것 같다. 교화의 내용이 이 정도라면 중간치가 없는 확실한 이분법이다.

□ 일연의 이분법적 논리

1. 고승은 초월적 존재이고, 용왕은 축생이다.
2. 고승은 교화 주체이고 용왕은 교화 대상이다.
3. 축생의 경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신인이 된다.
4. 고승은 천제와 맞서며 불교적 우주 그물망을 구현한다.

27)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많이 구사하고 있다. 이른바 구법설화라 할 수 있는 <南白月二大聖>, <義湘傳教>, <郁面婢念佛西昇>, <廣德嚴莊>, <包山二聖> 등에서 그런 점이 잘 드러난다. 이 설화에는 인물 성향과 공간적 배경이 대극적으로 나타난다. 대극적 방법을 구사하는 까닭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망과 탐욕을 청산하고 성불의 올바른 방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일연의 이분법적 논리는 고승과 용왕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3과 4를 보면 이분법적 논리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관점을 나타낸다. 3은 인간 본질론과 연관된다. 용왕은 교화 대상이므로 모든 중생을 가리킨다. 모든 중생은 축생을 벗어나 신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모든 중생은 축생이면서 신인이고 축생 아니면 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연의 禪思想을 고려할 때, 축생에서 신인으로의 전환 현상은 중생에서 부처로의 전환 현상이다.²⁸⁾ 이런 전환 현상은 중생이 불성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바인데, 부처가 된 뒤에는 엄청난 권능을 지닌다. 4는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고승이 천제와 맞선다고 하니 고승이 부처가 되어 독자적으로 우주 그물망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연의 이분법적 논리는 모든 존재에게 양자택일을 강하게 요구한다. ‘중생과 부처,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중생-부처’의 이분법은 대중을 압박하는 교화 방법이다. 다양한 변수를 차단하고 극과 극인 중생과 부처만 남겨 놓았기 때문에 논점이 분명하다. 논점에 따르면 모든 존재가 야만 상태로 살아가되 항시 야만 상태에 머무르지는 않는다. 즉, 현재는 야만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의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 용왕은 불성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여러 용왕이 한결같이 고승으로부터 설법을 듣거나 용궁에 대장경을 유치한다고 한 점이 그 증거이다. 이로 보아, 고승을 만난 용왕은 야만 상태에 있다가 불교적 우주 그물망 속으로 들어갔고, 그 뒤 부처가 되었거나 부처의 경지에 올랐으리라 이해된다. 한 티끌이 우주만물을 머금었다고 하는 화엄의 논리²⁹⁾에 비추어 추론해볼 때, 일연은 용왕을 ‘중생-부처’ 구도의 대표적

28) 축생에서 부처로의 전환 현상은 용왕에게 불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화엄사상이 佛種性論에 입각해 있음을 상기할 때, 용 관련 기록에는 화엄의 논리가 투영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오대혁, 「一然의 禪思想과 『三國遺事』의 상관성」, 『한국어문학연구』 60, 동악어문학회, 2013, pp.44-56 참조.

사레이면서 모든 존재를 머금은 전형적 인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중생-부처’ 구도는 두 가지 功效를 지닌다. 야만 상태를 청산하고 개화 상태로 나아갈 전망을 부여하는 대신, 토속신앙을 벗겨내고 주체성도 빼앗아간다. 용왕은 비로 그 당사자이다. 축생일 때는 고승을 초치하여 신인의 경지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신인이 될 때는 개성을 잃고 집단적 의식만을 확보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중생-부처’ 구도가 여러 이념을 생산하고 각 용왕을 특정한 이념 속에 배속시킨다. 여러 용왕이 護法龍이니 護國龍이니 하며 특정한 직능에 배속되는 현상³⁰⁾은 그 예이다. ‘중생-부처’ 구도가 무엇인가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고 볼 때, 합리적 사고를 하는 독자들 간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얻은 것이 더 큰가,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가?’가 그것이다. 논란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 일연 당대의 합리적 사고가 후대에서는 의구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V. 결론

『三國遺事』에서는 용왕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용왕을 神으로 존송하는 경우와 용왕을 짐승으로 천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용왕의 권능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에서는 상대적 용신신앙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용신신앙이 당대 용신신앙을

29) 義湘의 <華嚴一乘法界圖>에 나오는 말이다. 해당되는 원문은 “一微塵中含十方”이다.

30) 호법룡은 불법을 수호하는 용이고 호국룡은 국토를 수호하는 용이다. 이 두 용어의 출처는 『삼국유사』이다. 호법룡은 卷3, 塔像의 <皇龍寺九層塔>에 나오고 호국룡은 卷2, 紀異의 <文虎王法敏>에 나온다. 金煥泰, 앞의 글, pp.144-153과 金鎮煥, pp.58-63 참조.

대변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불교적 시각이 상대적 용신신앙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인물층위에 입각해서 불교적 시각을 견어내어야 용왕과 용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리라 본다.

용왕은 신인이기도 하고 축생이기도 하다. ‘신인’이라고도 하고 ‘축생’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착종처럼 보이지만, 상대편 존재의 위상의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상대편 존재란 고승을 가리킨다. 용왕이 처음에는 축생의 위상을 지녔지만, 고승의 도움을 받아 신인의 위상을 지니므로 착종이 아니라 정합성을 지닌다고 해야 옳다. 토속신앙에서 처음부터 신인으로 등장하는 용왕을 처음에는 축생이었다고 강변하는 까닭은 부처나 고승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결국, 일연은 용왕을 불교세계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용왕을 축생으로도 만들고 신인으로도 만들었다.

용왕을 불교세계의 질서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용왕의 거주지인 용궁 또한 불교세계의 질서에서 예외로 둘 리가 없다. 용궁과 고승은 연관성이 아주 깊다. 고승만이 용궁 출입을 하고 고승만이 용궁을 우주 질서에 편입시킨다. 일연이 고승의 비중을 이토록 높인 데는 까닭이 있다. 고승을 고리로 하여 공간과 공간, 공간과 인물이 일종의 불교적 우주 그물망을 형성한다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불교적 우주 그물망 속에 들어간 용왕은 독자성이 없으며 오로지 고승에게 기대어야 한다. 여러 용왕이 구법 여행에서 귀환하는 고승을 招致하고자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황이 이렇다면 고승에 의해 용궁 풍정이 나타나야 하겠지만, 의외로 고승이 아닌 인물에 의해서 용궁 풍정이 나타난다. 즉, 용궁 풍정이 고승이 등장하지 않는 <수로부인>·<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는 나타나고 고승이 등장하는 여타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자는 별유천지비인간의 풍정 그 자체를 밝히고자 하고 여타 자료에서는 불교적 우주 그물망 속에 든 용궁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생겼다. 연대를 고려하

면, 일연이 토속적 용궁을 여타 자료로 가져와서 용궁의 우주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용왕과 용궁 형상을 총괄하면 두 가지의 사상적 특징이 포착된다. 첫째, 대칭적 세계관이 나타나는 데도 불교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 용왕의 위격을 낮춘 뒤 대칭적 세계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위격이 낮은 대칭적 세계관이 불교신앙에 대항할 수 없다. 둘째, ‘중생-부처’ 구도의 공효가 우주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야만 상태를 청산하고 개화 상태로 나아갈 전망을 부여하는 한편, 토속신앙을 벗겨내고 주체성도 빼앗아간다. 이렇게 보니, 『삼국유사』의 용왕과 용궁 형상에는 토속신앙에 대한 불교신앙의 강력한 지향 가치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승호, 「구법여행과 그 부대설화의 일고찰-귀국승의 용궁체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1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2, pp.241-250.
- _____, 「해양공간의 설화적 수용과 의미-『三國遺事』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7,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pp.50-65.
- 金煥泰,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龍神信仰-삼국유사를 중심으로」, 『佛敎學報』11, 東國大 佛敎文化研究院, 1974, pp.123-129.
- 金鎭煥, 「龍神思想에 관한 考察」, 『東國思想』18, 東國大, 1985, pp.50-54.
- 남동신,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20, 한국역사연구회, 1996, pp.41-47.
- 朴桂弘, 「古代 龍神思想에 關한 研究」, 『韓國言語文學』6, 韓國言語文學會, 1969, pp.127-132.
- 박다원, 「韓國 龍說話 研究-전승집단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한 考察」, 嶺南大 博士論文, 2016, pp.7-8.
- 박진태, 「『삼국유사』 용신설화의 유형과 작품양상」, 『고전문학과 교육』21, 한국고전

- 문학교육학회, 2011, pp.382-389.
- 신태수, 『대칭적 세계관의 전통과 서사문학』, 새문사, 2007, pp.47-55.
- _____, 『『三國遺事』〈南白月二聖〉의 서술층위와 인물층위』, 『국학연구논총』12, 태민국학연구원, 2014, p.3.
- _____, 『〈단군신화〉의 대칭적 세계관 그 후대적 변이』, 『민족문화논총』5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 pp.586-595.
- 安啓全, 『韓國佛敎史研究』, 同和出版社, 1982 p.79.
- 오대혁, 『一然의 禪思想과 『三國遺事』의 상관성』, 『한국어문학연구』60, 동아어문학회, 2013, pp.44-56.
- 元大淵, 『고소설에 나타난 용궁·동굴 공간의 양상과 의미 연구』, 建國大 博士論文, 2006, pp.65-112.
- 이혜화, 『龍 사상과 한국고전문학』, 깊은 샘, 1993, pp.20-33.
- 李聖熙, 『용궁의 서사문학적 구현 양상 연구』, 慶熙大 博士論文, 2001, pp.19-27.
- 전기웅, 『『三國遺事』 설화 속의 龍』, 『지역과 역사』27, 부경역사연구소, 2010, pp.231-235.
- 조범환, 『新羅 下代 僧侶들의 入唐 留學과 禪宗 佛敎 문화의 擴散』, 『韓國思想史學』40, 韓國思想史學會, 2012, pp.17-18.
- 趙石來, 『三國遺事所載 龍說話와 龍의 護佛』, 『진주교대 논문집』21, 진주교대, 1980, pp.131-132.
- 황경숙, 『이무기 설화와 기우제』, 『韓國民俗學報』4, 한국민속학회, 1994, p.181.
- 洪慶杓, 『龍神說話와 그 象徵體系 試攷』, 『韓國傳統文化研究』1, 韓國傳統文化研究院, 1985, pp.268-275.

Abstract

The Forms of Dragon King and His Underwater Palace in
Samgukyusa

Shin, Tae-soo

In *Samgukyusa*, the Dragon King is depicted as a man-god or beast. The Dragon King is called a beast to emphasize the authority of Buddha or high priest and include the Dragon King in the order of Buddhist world. The underwater palace of Dragon King is no exception to the order of Buddhist world, either, and the grounds can be found in the roles of high priests. It is said that only high priests can enter the underwater palace of Dragon King and bring the palace in the order of universe as the leading figure to establish the Buddhist cosmic network, in which the Dragon King has no independence and has to depend on a high priest to escape his current situation. Given those circumstances, it feels natural that the landscape of the palace should be revealed by a high priest, but it is not the case. The landscape of the palace cannot be shown because the dignity of the palace should be hidden. There are two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Dragon King and his underwater palace in terms of form: the symmetrical world view is used as a means of Buddhist faith, and the virtue of "people-Buddha" structure is expanded in a cosmic fashion.

Key Word : the Dragon King, the underwater palace of Dragon King, a man-god, beast, high priest, the order of universe, Buddhist cosmic network, the landscape of the palace, the symmetrical world view.

신태수

소속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전자우편 : djgjgj@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